

# 영상 너머의 세계를 찾아서

## 예술영화전용관의 영화자료실

진정한 영화광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있다. 예술영화전용관 동숭씨네마텍(대표 김옥랑, 서울 동숭동)이 운영하는 영화자료실이 그곳이다.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소장자료도 1천권 남짓하지만, 이 영화자료실은 독립적인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 있으나마나한 자료는 목록에서 제외

“이곳의 자랑이라면 있으나마나한 자료는 구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쏟아져 나오는 저널 비평이나 주관적인 감상문을 묶은 책은 저희 자료 목록에서 사양합니다.”

자료실을 담당·운영하고 있는 이나경씨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영화를 취미로 하고 있는 이들뿐 아니라 전공자들이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은 자료실을 만들겠다는 것.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해볼 수 있는 자료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그동안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한 영화와 감독을 중심으로 한 파일자료는 다른 영화자료실에서는 구해 볼 수 없는 것들이다.

100여개에 달하는 이 파일에는 문제작과 감독들의 영화기사, 인터뷰 기사와 손에 닿는 국내외 자료들이 복사되어 들어 있다. 그동안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했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짐 자무시, 잉그마르 베르히만 등이 주를 이루지만 켄 로치나 에밀 쿠스투리차처럼 주목받는 감독들의 자료도 빼놓지 않았다. 영화진흥공사에서 84년부터 해마다 발행하는 《영화연감》도 우리 영화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다.

**예술영화전용관의 자료실은 단순히 영화를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있는 영화감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영화이론서와 논문 등 국내외 자료 1천권이 구비돼 있다.**

서울 동숭동에 자리한 3평 남짓의 영화자료실.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두면 그 가치는 배가 되지요.”

이 자료실은 95년 11월 예술영화전용관이 문을 열면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96년 4월에 문을 열었다. 예술영화전용관의 회원이 될 정도라면 단순히 영화를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있는 영화감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구비한 자료는 영화이론서, 논문, 세계영화사, 영화감독론으로 나뉘어 국내자료 300여권, 외국자료 300여권에 파일·잡지 등이 포함돼 있다.

### 외국의 영화전문잡지 최신호도 구비

“회원들이 신청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외국자료는 영화평론가나 교수 등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구합니다.”

잡지도 국내잡지 외에 프랑스의 뉴웨이브 영화를 이끈 잡지로 영화관련 책자에서만 보던 프랑스의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 du Cinema)》, 홍콩의 영화전문지 《電影雙週刊》을 비롯, 《시네아스테(Cineaste)》, 《시네마토그래퍼(Cinematographer)》, 《필름 쿼트리(Film Quartely)》 등의 최신호를 만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영화소식을 좀더 빨리 전하기 위해 내년에는 구독잡지를 7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곳의 자료는 예술영화전용관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나 영화를 보러온 관객들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료실을 관리하는 인원이 적어 대어관리가 버겁기도 하지만, 일반관람객에게 자료를 대여할 경우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회

원들이 결성하는 소모임에 자료뿐 아니라 강의를 지원하는 것도 자료실이 맡고 있는 역할 가운데 하나.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알찬 소모임이 많이 꾸려졌으면 하는 것이 자료실의 바람이기도 하다.

### 영상시대, 종이책의 보고

“영화는 분명히 그림이죠.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 너머를 보게 하는 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모든 문화의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도 종이책 자료실이 필요한 이유를 이나경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결국 예술영화전용관의 자료실은 영상시대의 든든한 바탕이 되는 종이책의 보고인 셈이다.

— 이현주 기자

###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

K. 로렌츠 지음/강학순 옮김/224면/7,500원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기 위한 필독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20세기에 출발한 철학의 한 분과인 철학적 인간학에 관한 모든 입장을 저자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정리한 인간학 분야의 최신 연구서이다.

### 중국 도가(道家)의 음악사상

한홍섭 지음/304면/10,000원

서광사의 철학박사학위논문시리즈 제 13권인 이 책은 무위적인 자연음(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이아말로 음악음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도가의 음악사상을 유가의 음악사상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의미와 특징을 부각시켰다.

### 현대 분석 철학

M.K. 유니츠 지음/박영태 옮김/752면/28,000원/양장

현대 분석 철학의 개괄적인 입문서. 시대별로 분석 철학의 대표적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과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퍼스의 이론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대 분석 철학과의 접목을 꾀하고 있다.

### 플라톤의 국가·政體

플라톤 지음/박종현 옮김/720면/26,000원/양장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회람어 원전 역주서. 서광사의 회람 고전 출판 기획 가운데 첫 번째 결실로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한 번역어 선택, 꼼꼼한 주석 작업과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친 역작.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